

전남 서부권

전남 곳곳 대보름 맞이 전통 용놀이 펼친다

임진년 '용의 해'를 맞아 독특한 형식의 용놀이가 해남과 순천 등지에서 잇따라 펼쳐진다. <전라우수영 용쟁이 놀이>=목포대 도서문화연구원과 해남군 문내면.(사)문내면 발전협의회 오는 5일 오후 4시 해남군 문내면 울돌목에서 해방전까지 정월 대보름에 행했던 '전라우수영 용쟁이놀이'를 복원·시연한다. '전라우수영 용쟁이놀이'는 용놀이와 고싸움, 줄싸움, 줄소리와 걸궁 및 용줄태우기가 하나로 연결되어 있는 복합적인 놀이 형식을 띠고 있다.진도 소리문화 및 전라우수영의 수준진 설치 등을 계기로 독특한

전라우수영 용쟁이 복원... 5일 해남 울돌목서 시연
중흥·해장 용줄다리기 4일 순천 해룡서 안녕 기원
계 형성 발전한 것으로 추정된다. 전라도 우수영지역의 강강술래가 여성 중심의 추석놀이인데 비해, 남성 중심의 대보름놀이인 용쟁이 놀이는 청사초롱으로 치장한 고에 처량하고 느린 노래를 부르는 용놀이, 용맹을 과시한다는 육싸움과 깃발싸움, 화합과 친목을 도모하는 용줄태우기 등으로 구성되어 있는 대보름놀이이다.
목포대 도서문화연구원 변남주 HK연구교수는 "전라우수영 용쟁이 놀이는 형식적인 면에서 장흥 보름줄다리기와 광산 고싸움놀이가 하나로 합쳐진 모습의 놀이인 면서도 슬픈 소리로 시작해 용맹을 떨치고, 다시 화합을 도모하는 독특한 형식의 집단놀이"라고 말했다.
<순천 해룡면 용줄다리기>= '제14회 중흥·해장 용줄다리기'가 오

는 4일 순천시 해룡면 해장마을에서 열린다. 용줄다리기는 보름을 맞아 앞·수 2개의 용줄에 고를 걸어 당겨 마을의 대동 단합을 통한 풍년, 안녕을 기원하는 행사이다. 순천시 관계자는 "전통단체 놀이 문화의 맥을 이어가는 마을 자체 축제로 진행될 될 예정"이라며 "이번 행사가 농촌 사회문화 자원을 통한 도농교류 활성화에 기여할 뿐 아니라 시민들에게 잊혀져 가는 전통문화를 체험할 수 있는 소중한 기회가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서부취재본부=박희석기자 dia@
/동부취재본부=김은종기자 ejkim@



완도군 고금면 어민들이 전북 치패 선별작업을 하고 있다. 치패는 가두리 양식장에서 2년 이상 키우면 전북 성패가 되어 식탁에 오른다. <완도군 제공>

해남 농수산물 생산 체험하세요

군, 포털 파워블로거 30명 선발 체험단 운영

해남군이 주요 포털 사이트의 '파워 블로거' 30여명을 선발, 2012년 해남 농수산물 체험단을 운영한다. 군은 지난해에도 10개월 동안 33명의 블로거단을 운영해 12개 해남 특산품에 대해 체험활동과 홍보활동을 펼친 결과 주요 포털 사이트 블로거 및 군청 홈페이지에 840여건의 체험후기가 등재되는 등의 성과를 거두기도 했다. 2012년 체험단들은 오는 3월부터 12월까지 10개월간 운영된다. 체험단에게는 해남의 주

요 관광지 및 생산현장을 견학하는 '그린 투어'의 특전을 부여한다. 해남 농수산물 체험단 모집은 오는 20일까지 실시하며, 자체 심사를 거쳐 2월말 최종 선발할 예정이다. 해남군 관계자는 "지난해 '파워 블로거'들과 함께 해남 농수산물 홍보활동을 실시한 결과 해남 농수산물에 대한 인터넷 검색빈도가 높아지는 등 홍보효과가 높았다"며 "올해도 지속적으로 운영할 방침이다"고 말했다.
/서부취재본부=박희석기자 dia@

전남신보 중기 출장 상담
합평 71개업체 20억 대출

합평군과 전남 신용보증재단(이사장 이계연)이 지난 한 해 동안 운영한 출장상담이 지역경제 활성화에 큰 역할을 한 것으로 나타났다. 31일 합평군에 따르면 지난해 2월부터 전남 신용보증재단과 업무협약을 맺고 매주 화요일 군청 민원실에서 지역내 소기업과 중소기업인을 대상으로 출장 보증상담을 실시한 결과 지난해 한해동안 71개 업체가 신용보증서를 통해 20억원의 대출을 이용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전년도 10억원에 비해 2배에 해당하는 금액으로, 합평지역내 소기업·소상공인의 생활안정은 물론 지역경제 활성화에 큰 도움이 된 것으로 평가됐다.
/서부취재본부=황은희기자 hwang@

진도북놀이 관광객 유치
생생체험 3년 연속 선정

진도 북놀이(전남도 무형문화재 제18호)가 문화재청이 후원하는 '생생체험 사업'에 3년연속 선정됐다. 진도 북놀이 생생체험은 그동안 지난 산면 세방낙조, 향토문화회관 등에서 3월부터 11월까지 매주 토요일에 열려 관광객 유치와 지역경제 활성화에 이바지했다. 지난 2년간의 경험을 바탕으로 북놀이 체험 외에도 북 페스티벌 개최, 북놀이 민속전수관 활용프로그램 등 보다 더 다양하고 즐거운 문화체험으로 관광객에게 다가갈 예정이다. 이를 위해 체험 예약제를 시행한다. 6~8월에는 토요일숙여객 공연이 끝난 후 북놀이 체험과 어울림 마당을 열 계획이다.
/서부취재본부=박현영기자 hypark@

고진도성·철마산성 등 유·무형 유산 18개

진도 무형문화유산 등재 지정예고

진도 고진도성과 철마산성 등 18개 유·무형 유산이 진도 무형문화유산으로 등재된다. 31일 진도군에 따르면 진도 고진도성, 벽파정, 철마산성, 첨철산 봉수대 등을 진도 '무형문화유산' 등재하기 위해 지정예고를 실시했다. '향토 문화유산'으로 예고되는 강현각과 삼강비, 향현사(사지) 등은 진도의 대표적인 효의 표상이 되고 있다. 또 굴포연대, 오봉산연대, 첨찰산 봉수대, 여귀산 봉수대, 금갑연

대봉 연대, 하조도 돈대봉 돈대는 유일한 통신 역할을 했던 곳이다. 특히 진도 고진도성은 백제~조선시대의 장방형 평지석성으로 현존 북벽길이 65m, 높이 3m, 상폭 1m, 동·서·남벽 1m내외로 보존되고 있다. 철마산성은 통일신라~조선시대 초기의 유산으로 총길이 245m, 높이 1.5~2m 현존하고 있으며, 조선시대 이전의 관방유적으로 가치를 지니고 있다. 고군면 벽파리에 소재하는 벽파정



진을 도진(渡津)으로 개설하면서 정(亭)과 원(院)을 설치해 진도를 출입하는 각 나라 사신, 군수, 유배자 등의 오가는 진도의 관문 역할을 했다. 진도군은 30일 동안 지정 예고 기간에 주민의견 수렴 및 진도군 향토문화유산 보호위원회 심의를 거쳐 향토문화유산으로 확정할 예정이다.
/서부취재본부=박현영기자 hypark@

전북

군산 해망동에 수산물 연구·가공 단지

2014년까지 195억원 투입 1만6648㎡ 규모 조성

군산 해망동에 수산물 연구·가공 거점단지가 들어선다. 전북도는 군산시 해망동 군산수협 위판장 일원에 총사업비 195억원을 투입해 올해부터 2014년까지 3년간 군산 수산물 연구·가공 거점단지(연면적 1만6648㎡ 규모) 조성사업을 추진한다. 수산물 연구·가공 거점단지에는 12개소의 수산물 가공공장

과 냉동·냉장창고, 수산물 제품 개발센터, 전시·홍보관, 지원센터 등이 들어설 계획이다. 우선 도는 올해 6억원 예산으로 군산수협 위판장과 어업수선국 등 기존 건축물 철거를 위한 감점평가와 기본 계획 및 실시설계 용역을 실시한다. 또한 도는 사업의 건실성을 위해 민·관·학과 협력이 유기적으로 참여하도록 유도할 방침이다.
/전북취재본부=박근석기자 nogusu@

전북도 관계자는 "도내 인근해역에서 어획한 수산물을 가공해 고품질 수산물로 개발하면 동남아·미국 등 해외시장 개척은 물론 지역경제 활성화에도 기여하는 시너지 효과도 기대된다"며 "이번 사업에 따라 앞으로 군산이 서해 중부권 수산물 집산지의 메카로 자리 매김할 수 있는 기반이 마련될 것"이라고 말했다.
/전북취재본부=박근석기자 nogusu@

남원시 부동산 종합 공부 시스템 구축

2014년까지... 토지 건축물 등기부 등 오류자료 연내 정비

남원시가 오는 2014년까지 부동산 종합 공부(公簿)시스템을 구축한다. 남원시는 지난해 지적공부와 건축물, 등기 등 부동산 공적장부 18종을 1종으로 통합하기 위한 '부동산 행정정보 일원화사업'에 공모해 선정됐다. 이번 개발된 약주는 '버들송이 버섯'에 우리 쌀과 누룩을 사용한 전통

공하기 위해 지난해 '부동산행정 자료 정비 시스템'을 구축하고, 지적공사 전문인력 2명을 지원받아 토지관련 오류자료를 정비중에 있다. 시는 토지와 건축물, 등기부 등과 연계한 공부 상호간 오류자료는 올해 말까지 정비 완료할 예정이다. 종합공부 시스템 구축이 완료되면 민원인들

에게 토지대장과 건축물 대장을 한눈에 볼 수 있는 맞춤형 부동산 종합증명서를 무료로 제공할 수 있게 된다. 남원시 관계자는 "공부 시스템이 구축되면 부동산 업무 프로세스의 획기적인 개선으로 주민들의 시간과 비용을 줄일 수 있고, 서류감소를 통해 서민 부담을 줄여줄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전북취재본부=백선기자 bs8787@

'버들송이 버섯' 이용 약주개발

도 농기원 특허출원

'버들송이 버섯'을 이용한 약주가 개발됐다. 전북도 농업기술원은 "지역에서 생산된 '버들송이 버섯'을 이용해 약주형 발효주를 개발, 전국 최초로 특허 출원했다"고 31일 밝혔다. 이번 개발된 약주는 '버들송이 버섯'에 우리 쌀과 누룩을 사용한 전통

주 방식으로 제조된 발효주(알코올 함량 16% 내외)이다. 특히 버섯을 첨가하지 않은 약주보다 항산화활성이 11%, 항당뇨 활성이 12% 높은 기능성 약주로 평가된다. 특히 버섯 첨가방법과 전통주 담금 방식, 누룩의 종류를 각각 달리해 술을 빚음으로써 버섯에서 발생하는 나쁜 향을 대폭 줄였다.
/전북취재본부=류정영기자 ryu0418@



전북도 농업기술원 관계자는 "앞으로 '버들송이 버섯' 약주 특화기술에 관심 있는 주류 가공업체에 기술이전해 산업화할 계획이다"고 말했다.
/전북취재본부=류정영기자 ryu0418@

뉴스 브리핑

전주시립도서관 RFID칩 카드로 회원증 사용

전주 시립도서관(관장 안병수)은 2월부터 교통카드·휴대폰·신용카드 등 RFID(전자식별)칩을 내장하고 있는 카드로 도서회원증을 대신할 수 있는 서비스를 본격적으로 실시한다. 이 서비스를 이용하려면 교통카드 등 RFID 칩이 내장된 카드를 가지고 전주 시립도서관(7개

관)을 방문, 등록하면 된다. 전주 시립도서관 관계자는 "이번 서비스 도입에 따라 기존 도서회원증의 신규·재발급시 소요되는 비용을 절감하고, 도서관 이용자들에게 보다 빠른 도서회원증 발급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게 됐다"고 말했다.
/전북취재본부=김철수기자 knews@

군산 지방세 최고 납부 기업은 '현대중공업'

기업도시로 변모하는 전북 군산에서 지난해 지방세를 가장 많이 낸 기업으로 65억원을 납부한 '현대중공업'이 꼽혔다. 현대중공업에 이어 OCI(63억원), 세아베스텔(26억원), 한국GM(20억원), 군산레저산업(13억원), 타타대우(12억원) 순으로

나타났다. 상위 6개 기업의 합계액이 200여억원으로 지난해 2007년(90억원)에 비해 2.2배 증가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들 기업이 낸 지방세는 전체 기업의 16%다.
/전북취재본부=박근석기자 nogusu@

김제시, 여성가족부와 여성친화도시 협약

김제시는 31일 여성가족부와 지역정책과 발전과정에 남녀가 동등하게 참여, 혜택이 모든 주민들에게 고루 돌아가고 여성의 성장과 안전이 구현되는 '여성친화도시' 협약을 체결했다. 시는 오는 2016년까지 여성가족부와 함께 '양성이 평등한 도

시, 안전하고 쾌적한 도시'를 목표로 여성친화도시 조성사업을 펼칠 계획이다. 시는 지난해 4월 '여성 친화도시' 지정을 위한 세부계획을 수립하고 여성친화도시 조례를 제정했다. 12월 5일에는 '여성 친화도시'로 지정됐다.
/전북취재본부=홍윤선기자 hnews@

정읍시 기초생활수급자녀에 수확여행비 지원

정읍시는 올해부터 기초생활수급자 자녀 가운데 중·고등학생에게 수확여행비를 전액 시비로 지원한다. 시는 예산 8000만원을 투입해 수확여행에 참여하는 중학생에게는 15만원, 고등학생에게는 20만원을 지원하며, 대상자

는 음·면·동에 수확여행비 납부 영수증을 구비해 신청하면 된다. 김성기 정읍시장은 "학생들에게 현장교육 참여기회를 제공함으로써 '복지 정읍'을 만드는 데 한걸음 더 나아가게 됐다"고 말했다.
/전북취재본부=빅킴기자 parkks@



남원 명품 오이 수확... 울척 출하

남원시의 명품 특화품목인 오이가 올해 첫 출하됐다. 남원시 사매면 인화리 최경호(52) 씨는 31일 첨단 연동하우스에서 재배한 오이 20상자(10kg 들이)를 수확해 상자당 5만원씩에 대도시로 판매했다. 가격은 지난해 같은 시기 3만원보다 2만원이 높은 가격이다. 남원시는 5~6월에 수확하던 생산체계를 늘리기 위해 지난해

첨단 연동하우스 시설을 해 연중 생산할 수 있는 시설을 갖추었다. 시는 오는 2020년까지 생산규모를 50ha 이상으로 늘려 명품 오이 생산 거점지역으로 육성할 계획이다. 한편 남원 오이는 사매, 이백면 등 65 농가에서 27ha를 재배, 3300여t을 생산해 연간 89억원의 수익을 올리는 효자작목이다.
/전북취재본부=백선기자 bs8787@

김제소방서 80여명 '사랑의 헌혈'

김제소방서는 지난 30일 김제소방서 후정에서 유영철 서장과 소방공무원 의무소방원(사회복무요원)과 관내 의용소방대원 등 80여명이 참여한 가운데 '사랑의 헌혈운동'을 펼쳤다. 이날 행사는 관내 혈액부족 상황이 우려됨에 따라 '나눔과 실천'을 통해 봉사하는 소방 공무원상 정립을 위해 마련됐다. 유영철 소방서장은 "수혈을 원



하는 환자들에게 사랑을 나누주는 마음으로 헌혈에 동참하니 뿌듯하다"고 말했다.
/전북취재본부=홍윤선기자 hnews@